

## 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선택적 주의 비교분석연구

박혜원 · 원영미 · 이귀옥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 전공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전공

### <요약>

본 연구에서는 Miller & Weiss(1981)가 개발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중국 연변의 소학교 4학년 40명과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선택적 주의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택적 주의능력은 관련문을 여는 비율인 총선택성비율, 선택적 주의능력 수행점수인 회상과제점수, 선택적 주의책략의 5개 범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범주에 비추어 평가되었다. 연구결과, 아동의 총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에 있어서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향성을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에 비해 총선택성비율이 낮은 반면에 회상과제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5개 범주유형별로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을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보다 많은 한국아동이 조선족 아동보다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유형(관련 문만을 열어보는 경우 및 대부분 일정한 패턴에 따라 문을 열어보는 경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의 선택성 비율과 회상과제 수행점수간의 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조선족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관련문을 여는 비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책략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아동보다는 조선족아동인 것이다.

주요어: 4학년, 조선족아동, 선택적 주의능력

## A comparative analysis of selective attention between Chinese-Korean and Korean children

Hyewon Park · YoungMee Won · Kwee-ock Lee  
Univ. of Ulsan, Kyungsung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mpare selective attention between 40 Korean-Chinese in Yanji and 40 Korean children. Children selected either relevant or irrelevant object to look at by deciding which door to open on the revised apparatus which was originally designed by Miller & Weiss(1981). Children's selective attention was evaluated in terms of 1)a proportion score consisting of the number of relevant door opened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door opened, 2)a total performance score of the task in which certain objects were to be remembered, and 3)the pattern of selective attentional strategies which was used most frequently by the chil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on proportion scores and performance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of children. However, more Chinese-Korean children inclined to show a lower proportion and a higher performance score on selective attent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oportion scores and the performance scores only in Chinese-Korean children.

## I. 서 론

중국의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보호정책 하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왔다.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조선족은 한국이외의 단일 거주지역에 거주하는 한 민족으로서는 가장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타 국가 내에서 민족 고유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이 중언어사회로서는 매우 보기 드물게 거대한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언어학적으로 중국의 조선족은 독립된 두개의 언어를 가지는 수평적 이중언어체계 (Horizontal bilingualism)에 놓여 있으며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 환경 속에서 안정된 이중언어 생활을 누리고 있다(박영순, 1990). 그러나 근래에 와서 중국의 개혁화, 개방화 정책으로 인하여 제1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조선족 아동 사이에서도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사용수준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언어발달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발달의 문제를 넘어 이중언어가 인간의 인지와 사고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 문화의 근간이며, 인지, 사회, 정서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연구결과가 항상 일관성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초창기 이중언어연구에 있어서는 이중언어가 아동의 지능 발달이나 학업성취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였다(Darcy, 1963). 그러나 Pearl 과 Lambert(1962)는 이중언어연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이중언어 아동들은 단일언어아동들에 비해 개념형성 및 상징적 융통성(symbolic flexibility)을 포함하는 비

언어적 검사에서뿐만 아니라 언어검사에서도 나은 수행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종전의 연구와는 상반된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다.

Pearl과 Lambert(1962)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래로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다양한 인지 영역에서 유리함을 보인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중언어를 말하는 아동들은 한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아동에 비해서 개념형성, 상징의 발달, 확산적 사고, 장독립성, 상위언어지식 등의 특정한 인지적 측면에서 이점을 보인다고 하였다(Bialystok, 1988, 1992; Carringer, 1974; Cummins, 1978; Duncan & DeAvila, 1977; Ianco-Warrall, 1972; Liedtke & Lelson, 1968; Torrance, Wu, Gowan, & Allioti). 이중언어와 인지발달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들이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들 연구가 여전히 방법론적인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Diaz, 1985; Takakuwa, 2000)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지능을 포함하는 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Bialystok, 2001a) 근래에 와서는 이중언어아동에게 유리하게 보여지는 인지과정의 한 영역인 상위언어능력에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신귀련, 조희숙, 2002; Bialystok, 2001b; Bialystok, 1992; Bialystok & Ryan, 1985; Carlisle, Beeman, Davis, & Spharim, 1999; Cromdal, 1999; Galambos & Goldin-Meadow, 1990).

Bialystok과 Ryan(1985)은 상위언어지식을 언어지식의 분석(analysis of linguistic analysis)과 언어처리과정의 통제(control of linguistic processing)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전자는 언어의 의미나 기능을 아는 것, 그 이상의 지식의 구조를 표상화하는 능력을 말하며, 후자는 언어의 의미보다는 언어의 특정한 측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두 과정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들로 하여금 단순한 대화상황에서부터 읽기와 상위언어지식이 요구되는 의도적 언어사용으로 발달하게 한다고 하였다. Bialystok(1986, 1988, 1992, 2001b)은 상위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사용하여 이중언어와 상위언어지식간에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고하였는데,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분석(표상)보다는 통제(선택적 주의)가 요구되는 과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와서 Bialystok과 그의 동료들(Bialystok & Codd, 1997; Bialystok & Majumder, 1998)은 높은 수준의 통제가 요구되는 비언어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과제와 수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일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즉, 이중언어아동은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과제에서는 유리하게 나타난 반면에 높은 수준의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중언어 연구자들은 이중언어아동이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언어 중 적절한 한가지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거의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한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능력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Bialystok, 1986, 1988; Bilalystok, 2001a; Ben-Zeev, 1977; Cummings, 1978; Macnamara, 1967). 예를 들면 Ben-Zeev(1977)는 상위언어능력과제를 사용하여 이중언어아동이 언어를 분석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언어적인 단서에 보다 더 민감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는 이들 아동이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인지전략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한 Bilalystok(2001a)에 의하면, 이중언어아동이 한가지 언어를 사용할 때 사용되지 않는 다른 언어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그 언어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두 가지 언어를 학습하는 언어적 경험이 다양한 과제에서 주의 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중언어아동의 경우 단일 언어아동에 비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억제하는 능력이 보다 유리하게 발달된다는 것이다.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란 개인이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와 관련된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목표와 상관없는 무관련 자극은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주의라는 개념은 Broadbent(1958)가 제안한 여과기모델(filter model)로부터 시작된다. 이 모델에서는 입력정보가 전달되는 통로의 어떤 지점에 주의가 여과기처럼 존재하고 있어서 정보를 거르기 때문에 주의라는 여과기를 통과한 정보에 대해서만 다음 단계의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경험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택적 주의능력은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며 정교화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김은화, 박혜원, 1999; 백옥현, 1992; DeMarie-Dreblow & Miller, 1988; Miller, DeMarie-Dreblow & Woody-Ramsey, 1986; Miller & Weiss, 1992).

선택적 주의능력의 발달은 부분적으로 선택적 주의책략의 발달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선택적 주의책략이란 주의를 무관자극으로부터 멀리하고 유관자극으로 향하게 하는 시공간적인 반응 패턴을 말한다(Woody-Ramsey & Miller, 1988). 연령에 따른 주의 수행의 증진은 자발적으로 책략을 사용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책략을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며, 초창기 책략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실수의 수, 분류속도, 언어적 보고, 시선이동 등을 통해 책략사용을 간접적으로 추론하였다(백옥현, 1992). 이러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가지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Miller와 Weiss(1981)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선택적 주의책략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해 내었다(김은화, 박혜원, 1999).

선택적 주의 능력을 측정한 여러 연구들(DeMarie-Dreblow & Miller, 1988; Miller & Aloise-Young, 1995; Miller & Harris, 1988; Miller, Haynes, DeMarie-Dreblow, & Woody-Ramsey, 1986; Miller, Seier, Barron, & Probert, 1994; Miller, Seier, Probert, & Aloise, 1991; Miller, Woody-Ramsey, & Aloise, 1991; Miller & Weiss, 1981; Woody-Ramsey & Miller, 1988)에 의하면, 유아기부터 아동기에 걸쳐 선택적 주의책략의 발달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책략산출에서부터 완전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달단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책략발달단계는 아동이 전혀 책략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부분적으로 책략을 사용하는 단계, 선택적으로 책략을 사용하지만 그로부터 실제 과제수행의 이득을 얻지 못하는 단계(활용결합단계), 자발적으로 책략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완전한 과제수행의 이득을 보는 최종단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마지막 단계는 아동들이 약 8-10세가 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선택적 주의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김영수, 1994; 김은화, 1997; 백옥현, 1992; 서백환, 1993)는 소수에 불과하며, 백옥현(1992)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아동의 연령이 8세 이상인 경우에 완전한 수준의 선택적 주의책략을 사용함이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은 인지발달에서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유리한 양상을 보고하여 왔다. 이들 아동은 두 가지 언어를 습득하는 경험으로 해서 단일 언어만을 습득하는 아동과는 다른 인지적인 경험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중 언어아동은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장독립적인 양상을 보이며, 장독립적인 아동이 장의존적인 아동에 비해 보다 성공적으로 제2언어를 습득한다고 한다. 그런데 장독립성(장의존성)을 측정하는 숨은 그림 찾기 검사의 특징을 보면 고도의 선택적인 주의집중력이 요구된다. 특히 Bialystok(1992)의 연구에서 아동의 숨은 그림 찾기 검사 점수는 선택적 주의를 요구

하는 검사에서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이러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검사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따라서 이중언어아동은 인지양식 중에서도 특정한 인지과정인 선택적 주의능력에 있어 유리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조선어를 제1언어로 하면서 중국어를 제 2언어로 사용하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아동의 이중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인지나 사회,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이중언어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중언어발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이중언어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가 인지발달에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아동과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한국의 아동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재중 한국인들의 이중언어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향후 해외동포들의 이중언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연구들이 이중언어와 인지발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균형잡힌 이중언어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중언어 수준에 따라 이중언어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Bilaystok, 1986, 1988, 2001b; Cummins, 1978; Diaz,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가 충분히 발달되었다고 여겨지는 소학교 4학년 정도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조선족 이중언어 아동의 인지과정 중 선택적 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Bialystok과 Ryan(1985)의 상위언어모델을 구성하는 분석과 통제의 두 가지 하위차원 중 이중언어아동이 단일언어아동에 비해 일관성 있게 이점을 보이는 통제차원에서 연변 조선족 아동은 한국의 아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I. 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간에 선택적 주의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1. 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총선택성 비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2. 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회상과제 점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연변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대표범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선택적 주의책략(선택성비율)과 선택적 주의수행(회상과제점수)과의 상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Miller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을 선택적 주의 책략으로부터 완전한 이득을 보는 연령인 초등학교 4학년(만 9세-10세미만)으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의 길림성 연길시에 소재한 조선족 S소학교 4학년 2학급에서 표집한 40명의 아동과 한국의 부산시 양정동에 소재한 Y초등학교 2학급에서 표집한 40명의 아동으로 총 80명의 아동들이었다. 각 집단의 남녀 학생의 비율은 1:1로 동일하였다. 양 집단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 조선족 소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선족 소학생 아버지의 연령은 34세부터 48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M=39$ 세), 어머니의 연령은 32세부터 51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M=37$ 세).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총 가족 수는 2-6명( $M=3.4$ 명)이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500위엔부터 4,000위엔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집단평균은 1,925위엔( $Med.=2,000$ 위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아동의 월 평균 교육비는 100위엔부터 1,000위엔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집단평균은 419위엔( $Med.=400$ 위엔)으로 나타났다. 조선족 부모들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직종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는 4명에 불과했다. 부모의 학력은 다음의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부모 모두 전문대출 이상이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학력을 보였다.

### 2) 한국 초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아동의 아버지의 연령은 35세부터 5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M=43$ 세), 어머니의 연령은 33세부터 52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M=39$ 세). 아동과 함께 동거하는 총 가족 수는 3-6명( $M=4$ 명)이었으며, 가정의 월 평균수입은 80만원부터 60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나 집단평균은 258만원( $Med.=200$ 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동의 월 평균교육비는 5만원부터 8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집단평균은 27만원 정도( $Med.=20$ 만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분포를 보면,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아버지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36%로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의 비율이 약 42%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학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비율은 아버지의 경우가 약 41%이고, 어머니의 경우는 약 24%로 나타났다.

양국 부모의 교육수준을 고졸이하, 전문대출, 대졸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chi^2$  검정한 결과에 의하면 양국의 아버지( $\chi^2 = 5.43$ ,  $p \leq .05$ ), 어머니( $\chi^2 = 18.89$ ,  $p \leq .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lt;표 1&gt;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 부모의 직업 분포

조선족부모 직업종류	부 N(%)	모 N(%)	한국부모 직업종류	부 N(%)	모 N(%)
단순노무자, 가내산업	1(2.9)	2(5.4)	단순노무자	4(10.3)	1(2.6)
생산직 근로자	0(0.0)	1(2.7)	생산직 근로자	2(5.1)	0( 0.0)
운수,장비 운전기사	3(8.5)	0(0.0)	운수,장비 운전기사	6(15.4)	0( 0.0)
상점(매점)주인	1(2.9)	1(2.7)	자영업	14(35.9)	5(13.2)
기업(회사,공장,서비스업 등)경영	7(20.0)	5(13.5)	기업(회사,공장,서비스업 등)경영	2(7.7)	2(7.9)
판매직	1(2.9)	0(0.0)	판매직,서비스업종업원	1( 2.7)	8(21.0)
교직(소, 중, 고중)	4(11.4)	4(10.8)	교직(초, 중, 고)	1( 2.6)	1( 2.6)
군인	0(0.0)	1(2.7)	군인	0( 0.0)	0( 0.0)
사무직(과장급이하)	3(8.5)	6(16.2)	사무직(6급이하 공무원)	2(5.1)	1(2.6)
행정관리직(경리이상)	2(5.7)	2(5.4)	행정관리직(5급공무원이상)	1(2.6)	0( 0.0)
전문직, 고급기술직	5(14.3)	6(16.2)	전문직, 고급기술직	0( 0.0)	0( 0.0)
주부	0(0.0)	4(10.8)	주부	0( 0.0)	16(42.1)
무직	1(2.9)	0(0.0)	무직	2( 5.1)	0( 0.0)
기타	7(20.0)	5(13.5)	기타	3( 7.7)	3(7.9)
계	35(100)	37(100)	계	39(100)	38(100)

&lt;표 2&gt; 양국 부모의 교육수준별 분포

교육수준	조선족부모		한국부모	
	부 N(%)	모 N(%)	부 N(%)	모 N(%)
초등졸	0( 0.0)	0( 0.0)	0( 0.0)	3( 8.1)
중졸	4(10.8)	3( 7.9)	1( 2.6)	0( 0.0)
고졸	8(21.6)	9(23.7)	22(56.4)	25(67.6)
전문대졸	7(18.9)	13(34.2)	5(12.8)	1( 2.7)
대학이상	18(48.6)	13(34.2)	11(28.2)	8( 0.0)
계	37(100.0)	38(100.0)	39(100.0)	37(100.0)

## 2. 검사도구

### 1) Digit Span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지능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K-WISK-III(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의 언어성검사 중 소검사 항목인 숫자를 사용하였다. 숫자 소검사에서는 검사자가 차례대로 숫자를 말하면, 아동은 숫자를 순서대로 또는 역순으로 따라 하는 것이다. Digit Span검사는 아동의 기억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지능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Bialystok, 1986). 숫자 소검사에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최대점수는 30점이다.

## 2) 선택적 주의책략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Miller와 Weiss(1981)가 선택적 주의책략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도구를 연구자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간편하게 제작한 것이다. 검사도구는 연습용 검사판 1장, 동물제시판 1장(혹은 사물제시판 1장), 검사판 6장, 동물그림카드(혹은 사물그림카드)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판은 70cm × 25cm 크기의 검은 색 켄트지로 제작되었다. 검사판에는 문 아래 숨겨진 그림의 단서가 되는 집과 동물우리 그림이 위, 아래로 한 쌍씩 모두 6쌍이 부착되어 있다. 각 그림의 뒷개를 열면 집 문 밑에는 가정용품(결상, 스탠드, 컵, 시계, 책상, TV)그림이 나타나며, 우리 문 밑에는 동물(고양이, 개, 돼지, 말, 낙타, 원숭이)그림이 나타난다. 매 시행마다 검사판에 부착된 문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문 밑에 숨겨진 그림의 종류는 동일하다. 동물제시판에는 검사에 사용되는 6마리의 동물이 그려져 있으며, 사물제시판에는 검사에 사용되는 6가지 가정용품이 그려져 있다. 동물그림카드(혹은 사물그림카드)는 각 시행마다 숨겨진 하나의 그림의 위치를 알아 맞추는데 사용되는 카드이다. 연습용 검사판은 아동의 이해를 돋기 위해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연습용으로 사용되는데, 본검사용 검사판의 1/2크기로 3개의 집과 3개의 동물우리 문이 부착되어 있으며, 문 밑에는 가정용품 그림(냄비, 침대, 전화기)과 동물 그림(곰, 코끼리, 기린)이 각각 숨겨져 있다.

## 3. 연구절차

연변지역의 조선족 소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2003년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2003년 6월 16일과 17일 양 일간에 걸쳐 학교의 조용한 장소에서 훈련된 두 명의 동일한 검사자가 지속적으로 한 팀이 되어 진행되었다. 아동 1인당 검사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였다. 각 연구대상 아동은 본 시행에 앞서 연습시행을 통해 검사내용을 이해한 후 6번의 본 시행에 참여하였다. 각 집단 별로 동물항목과 가정용품항목에 대한 검사를 counter-balancing하였다. 검사의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연습단계에서는 아동에게 세 마리 동물과 세 가지 종류의 가정용품이 숨겨져 있는 연습용 검사판을 보여 준다. 연구대상 반수의 아동에게는 동물이 숨겨진 위치를, 나머지 반수의 아동에게는 가정용품이 숨겨진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해준다. 아동에게 마음대로 문을 열어보게 한 후에 동물과 가정용품 항목이 어느 문 밑에 숨겨있는지를 물어본다.
- ②본 실험단계에서는 먼저 여섯 마리의 동물이 그려진 동물제시판과 6가지의 가정용품이 그려진 사물제시판을 보여주며, 이 그림들이 문 아래 숨어 있다고 말해주고 나서 그것의 이름을 말해보게 한다.
- ③동물(혹은 사물)제시판을 가지고 아동에게 동물(혹은 가정용품)이 숨겨진 위치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 ④제1 검사자는 초시계로 30초의 시간을 쟀는데, 매 시행마다 아동에게 한 가지 동물(혹

은 사물)그림카드를 보여주고 나서 그 동물(혹은 사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물어본다. 제2 검사자는 아동이 문을 여는 순서를 기록한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수는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점수 및 대표범주이다.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이들 변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총선택성비율

아동이 각 시행에서 문을 열어본 총 횟수 중에서 관련된 문을 열어 본 횟수의 비율을 선택성비율로 정의하였는데, 총선택성비율은 6회 선택성비율의 평균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총선택성비율} = (\text{관련된 문을 연 횟수}/\text{문을 연 총 횟수})/6$$

##### 2) 회상과제점수

각 시행에서 기억해야 할 6개 항목의 위치 중 아동이 맞춘 정답 수를 회상과제점수로 정의하였다. 선택적 주의수행은 관련자극과 비관련자극이 제시된 상태에서 관련된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선택적 주의수행은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회상을로 측정되어 왔다(Miller & Weiss, 1981).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회상을로 회상과제점수를 사용하였다. 총 6번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점이다.

##### 3) 대표범주

본 연구에서는 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이외에도 질적 측정치로서 아동이 문을 열어보는 다양한 방법을 범주화한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은 다음의 5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각 시행에 대한 아동의 주의책략 유형의 분류는 아동관련 전공자 2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2인의 일치도가 92%에 도달할 때까지 유형분류 훈련을 하였다.

- ①관련 문만을 열어보는 경우(한번의 실수는 허용함)
- ②관련 문을 열어보고 나서 관련 문과 비관련 문을 함께 열어보는 경우
- ③적어도 70%정도는 위, 아래 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근처의 문을 열어보는 경우(예를 들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일관성 있게 위, 아래의 문을 차례로 열어본다.)
- ④적어도 50-70%정도는 위, 아래 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근처의 문을 열어보는 경우
- ⑤일정한 패턴 없이 무질서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보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대표적인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총 6번의 시행 중 빈도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범주를 대표범주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은 우선 조선족 아동과 한국아동의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점수, Digit Span점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t-검정을 하였으며, 국가와 성별이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보기 위해 국가와 성별을 주변수로 하고, Digit Span점수를 통제변수로 한 풍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양 집단간에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보기 위해 아동의 대표범주 사용에 대한  $\chi^2$  검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주의책략과 선택적 주의수행간의 상관을 보기 위해 선택성 비율과 회상과제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양 집단 아동간의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 점수, Digit Span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양국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대한 성별의 효과, 양 집단의 5개 범주별 선택적 주의책략 유형에 대한 분포의 차이 및 양 집단별 선택적 주의책략(선택성비율)과 선택적 주의수행(회상과제점수)간의 상관 등을 분석하였다.

양 집단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 및 Digit Span점수의 차이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은 총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로 정의된다.

<표 3>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 비교

	조선족아동			한국아동			전체 t-값
	남 M(SD)	여 M(SD)	전체 M(SD)	남 M(SD)	여 M(SD)	전체 M(SD)	
총선택성 비율	.72(.18)	.63(.19)	.67(.19)	.76(.23)	.68(.20)	.72(.21)	1.13
회상과제 점수	3.80(1.24)	3.55(1.36)	3.68(1.29)	3.35(1.90)	3.20(1.11)	3.28(1.54)	-1.26
DigitSpan 점수	15.45(3.24)	15.50(3.52)	15.48(3.34)	16.40(3.22)	15.75(2.97)	16.08(3.08)	.8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총선택성점수, 회상과제점수, Digit Span점수 등에 있어서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경향성을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에 비해 Digit Span점수와 총선택성비율은 낮은 반면에 회상과제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아동은 한국아동에 비해 선택적 주의책략을 적절히 사용하지는 않으나 선택적 주의수행과제에서 유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조선족아동의 Digit Span 점수를 제외하고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리한 경향성을 보인다. 총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를 백우현(1992)의 연구대상 9세 아동의 총선택성비율 .97( $SD=1.6$ ) 및 회상과제점수의 평균 4.83( $SD=.96$ )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평균치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검사실시과정상의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의 연습단계에서 검사자는 피험자에게 관련문과 숨겨진

그룹과의 관계만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그 이상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표 4> 국가와 성별에 따른 회상과제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b>주변수</b>				
국가	3.48	1	3.48	1.68
성별	.72	1	.72	.35
<b>통제변수(covariate)</b>				
Digit Span점수	.81	1	.81	.39
국가×성별	7.46E-02	1	7.46E-02	.04
오차	155.09	75	2.07	
<b>합계</b>	<b>1126.00</b>	<b>80</b>		

<표 5> 국가와 성별에 따른 총선택성비율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b>주변수</b>				
국가	4.31E-02	1	4.31E-02	1.08
성별	.13	1	.13	3.24
<b>통제변수(covariate)</b>				
Digit Span점수	4.52	1	4.52	1.13
국가×성별	9.78E-04	1	9.78E-04	.02
오차	3.00	75	4.00E-2	
<b>합계</b>	<b>42.13</b>	<b>80</b>		

국가와 성별이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점수 각각에 대해 Digit Span점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아동의 회상과제점수에 있어서는 국가 및 성별효과 그리고 국가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들(Miller & Weiss, 1981; DeMarie-Dreblow & Miller, 1988; Miller, et al, 1991; Miller, et al, 1994; Miller & Aloise-Young, 1995)과 일치된다.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이 사용하는 5개 범주유형별 대표범주의 비율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 조선족아동의 60%이상이 범주3(실험도구의 문을 열어보는 횟수 중 적어도 70%정도는 위, 아래 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근처의 문을 열어보는 경우)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유형인 범주1(관련 둔만을 열어보는 경우)에 분류되는 비율은 25%로 집계되었다. 한국아동의 경우는 범주3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53%로 가장 높았으나 범주1에 속하는 비율도 약 42%로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chi^2$  검정결과 양 집단간의 이러한 5개 범주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chi^2 = 2.91$ ,  $p = .57$ ), 범주1로 분류되는 한국아동의 비율이 보다 더 높음을 감안할 때 한국아동이 조선족 아동에 비해 보다 더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초등 4학년 아동(9세)이 범주1에 분류된 비율은 Miller & Weiss(1981)의 연구에서 미국의 5학년(10세)을 대상으로 한 자료(.53)와 비교하여 볼 때 약간 낮은 수치로 타당성 있는 결과로 보인다.

<표 6> 연변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의 대표범주\* 사용빈도 및 비율 N(%)

		<u>범주유형</u>				
		범주1	범주2	범주3	범주4	범주5
조선족아동	9(25.0)	2(5.6)	23(63.9)	1(2.8)	1(2.8)	
한국아동	16(42.1)	1(2.6)	20(52.6)	0(0.0)	1(2.6)	
전체아동	25(33.8)	3(4.1)	43(58.1)	1(1.4)	2(2.7)	

\*대표범주는 6번의 시행에서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한 선택적 주의책략유형임. 최대빈도수가 동일한 2개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함.

범주 1: 관련문 만을 열어보는 경우

범주 2: 관련문을 열어본 후 관련문과 비관련문을 혼합하여 열어보는 경우

범주 3: 대부분 일정한 패턴에 따라 문을 열어보는 경우

범주 4: 부분적으로 일정한 패턴에 따라 문을 열어보는 경우

범주 5: 일관성 있는 패턴을 보이지 않은 경우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이 선택적 주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들이 사용한 선택적 주의책략(선택성비율)과 수행점수(회상과제점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6번의 모든 시행을 고려했을 때 조선족 아동의 경우에만 총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각 시행별로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 시행1, 시행2, 그리고 한국 아동의 경우에는 시행1에서만 유의한 상관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만 9세부터 10세미만에 속하는 아동들로 관련문을 열어보는 횟수가 많은 아동들의 경우에 과제수행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백옥현(1993)의 연구와 Miller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여러 선행연구(Miller & Weiss, 1981; Miller, et al, 1986; DeMarie-Dreblow & Miller, 1988; Miller, et al, 1991; Miller, 1994; Bjorklund, et al, 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족 아동의 경우 총 2회의 시행에서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난 것은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의 사용이 이들 집단의 아동에게 보다 더 이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훈련된 동일한 2인의 검사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양 집단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양 집단의 이러한 차이가 검사자 변인에서 기인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한국 아동의 경우 시행1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첫 번째 시행에서 과제의 성격을 이미 파악한 후 과제 집중도가 낮아져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표 7> 연변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의 각 시행별 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간의 Pearson상관분석결과

시행	조선족아동	한국아동
시행1	.63**	.45*
시행2	.49**	.07
시행3	.11	.25
시행4	.28	-.03
시행5	.31	.25
시행6	.16	.10
평균	.57**	.25

\* p< .05 \*\* p< .001

#### IV. 결론 및 논의

근형잡힌 이중언어아동이 지적발달영역, 특히 높은 수준의 통제를 요구하는 선택적 주의 능력에서 단일언어아동보다 유리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연변조선족 아동이 선택적 주의능력에서 한국의 아동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 조선족 및 한국의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Miller & Weiss(1981)가 고안한 실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적 주의 능력은 관련문을 여는 비율인 총선택성비율, 선택적 주의능력 수행점수인 회상과제점수, 선택적 주의책략의 5개 범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범주에 비추어 평가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총선택성비율과 회상과제점수에 있어서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향성을 살펴보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에 비해 총선택성비율은 낮은 반면에 회상과제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족아동은 한국아동에 비해 선택적 주의책략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나 선택적 주의수행과제에서는 유리한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성별이 양국 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점수 각각에 대해 Digit Span점수를 통제변수로 하는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었다.

세째, 5개 범주유형별로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이 선택적 주의책략을 사용하는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체 조선족아동의 60%이상이 범주3(대부분 일정한 패턴에 따라 문을 열어보는 경우)에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유형인 범주1(관련 문만을 열어보는 경우)에 분류되는 비율은 25%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한국아동의 경우는 범주3에 속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53%로 가장 높았으나 범주1에 속하는 비율도 약 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보다 많은 한국아동이 조선족 아동보다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째,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의 선택성 비율과 회상과제 수행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행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족 아동의 경우 보다 많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것은 적절한 선택적 주의책략의 사용이 이들 집단의 아동에게 보다 더 이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조선족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관련문을 여는 비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책략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한국아동보다는 조선족아동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균형잡힌 이중언어아동인 조선족 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인 한국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이중언어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의 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총선택성비율, 회상과제점수, 대표범주와 관련하여 양국의 아동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선택성비율과 수행점수간의 상관분석결과를 보면 조선족아동에게 유의미한 결과가 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아동이 선택적 주의책략의 활용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족 소학교 4학년 아동과 한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조선족 아동의 이중언어가 아동의 인지영역, 특히 선택적 주의책략의 사용에 이득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층의 조선족 이중언어아동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조선족아동과 한국아동이 선택적 주의라는 인지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9세로 이 시기는 이미 아동의 이중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시점이므로 이중언어의 경험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추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이중언어경험은 이중언어습득 초기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들에게 보다 더 이득을 줄 수도 있다.

둘째, 대부분의 이중언어연구에서는 균형잡힌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을 비교하여 이중언어아동의 인지적인 이점을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지능력의 차이는 여타 사회, 경제적 변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양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단일언어집단이 한국의 아동들로서 중국의 조선족보다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 5세 유치원아동과 7세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Diaz(1985)의 연구에서 제2 언어 능력이 매우 높은 수준의 아동과 낮은 수준의 이중언어 아동들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이중언어수준과 인지능력간에 상관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오히려 제2 언어 수준이 낮은 이중언어집단의 아동의 경우에 인지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선족 아동들은 대다수가 이중언어수준이 높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중언어경험이 이들 아동의 인지발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균형잡힌 이중언어아동인 연변의 조선족 아동은 한국의 단일언어아동보다 선택적 주의능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선택적 주의책략을 사용할 경우 이득을 보는 아동은 한국의 아동보다는 조선족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양 집단간에 선택적 주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언어아동이 선택적 주의능력에서 단일언어아동보다 우수하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중언어아동의 선택적 주의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iller(1994)와 Miller 외(1994)의 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지능(IQ), 기질, 동기, 인지양식 등과 아동 외적 요인인 사회, 문화적 경험 및 교육경험 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

구에서 추가적으로 아동의 성별, 부모의 연령,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택성비율에 대해서 의미 있는 회귀식이 산출되지 않았으나, 회상과제점수에 대해서는 조선족 아동의 경우에만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회상과제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조선족 아동의 경우 낮은 교육수준의 아버지일수록, 높은 교육수준의 어머니일수록 아동의 교육적인 성취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조선족 아동과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주의능력의 발달에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선택적 주의능력이라는 인지영역에서 이중언어아동과 단일언어아동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5세 이하의 이중언어학습이 시작되는 시점의 아동과 이미 이중언어가 숙달된 아동을 비교한 결과와, 이들과 견줄 수 있는 한국 아동에 대한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양국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발달적 차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 아동에 대한 비교집단으로서 한국의 아동을 표집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비교집단을 조선족아동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유사한 중국아동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아동은 한국의 아동과 같은 한민족이지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이외에도 이를 아동의 인지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이중언어집단을 균형잡힌 이중언어아동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이중언어 수준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의 이중언어아동을 표집하여 이들을 각각 단일언어아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균형잡힌 조선족 이중언어아동을 한국아동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를 조선족아동이 인지영역 중 선택적 주의능력에서 우수함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재중 한국인들의 이중언어교육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은 자녀들의 중국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조기 중국어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서 조선족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선족 아동의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조선어교육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선족 부모들이 조기 중국어교육 열풍에 몰입되어 영유아기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중국어만을 사용하게 한다면 머지않아 중국의 조선족 2세들은 제2 언어에 비해 제1언어 수준이 훨씬 뒤떨어지는 불완전한 이중언어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조선족 사회에서 이중언어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변 조선족들이 누려왔던 안정된 이중언어생활을 유지하면서 보다 완전한 이중언어인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조기 이중언어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 참고문헌

1. 곽금주 · 박혜원 · 김청택(2001). *K-WISC-III(한국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2. 김영수(1995). 선택적 주의 책략에서 유치원아동의 활용결합에 대한 노력가설 검증.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은화 (1997). 선택적 주의 책략 발달 : 연령과 주의장애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김은화 · 박혜원(1999). 주의장애아동과 선택적 주의책략 수행분석. *울산대 자연과학논문집*, 8(2), 79-92.
5. 박영순(1990). 이중언어 이론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6, 135-167.
6. 백옥현(1992). 아동의 선택적 주의 전략과 금지기제의 발달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서백환(1994). 선택적 주의 집중이 우연 학습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신귀련 · 조희숙(2002). 아동의 상위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 연구*, 22(4), 173-188.
10. Ben-Zeev, S.(1977). The influence of bilingualism on cognitive strategy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8, 1009-1018.
11. Bialystok, E. & Codd, J.(1997). Cardinal limits: evidence from language awareness and bilingualism for developing concepts of number. *Cognitive Development*, 12, 85-106.
12. Bialystok, D. E. & Majumder, S(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bilingualism and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processes in problem solv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19, 65-89.
13. Bialystok, E.(1986). Factors in the growth of linguistic awareness. *Child development*, 57(2), 498-510.
14. Bialystok, E.(1988). Levels of bilingualism and levels of 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60-567.
15. Bialystok, E.(1992). Attentional control in children's metalinguistic performance and measures of field indepen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8(4), 654-665.
16. Bialystok, E.(1998). Coming of age in applied linguistics. *Language Learning*, 48(4), 497-518.
17. Bialystok, D. E.(2001a). *Bilingualism in development: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 Bialystok, D. E.(2001b). Metalinguistic aspects of bilingual process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1, 169-181.
19. Bialystok, D. E. & Ryan, E. B.(1985). A metacognitive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first and second language skills. In D. L. Forrest-Pressley, G. E. Mackinnon, & T. G. Waller, Eds., *Meta-cognition, cognition, human performance*, pp. 207-252. New

- York: Academic Press.
20. Bjouklund, D. F., Miller, P. H., Coyle, T. R., & Slawinski, J. L.(1997). Instructing children to use memory strategies: evidence of utilization deficiencies in memory training studies. *Developmental Review*, 17, 411-441.
  21. Broadbent, D. E.(1958).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New York: Pergamon Press.
  22. Carlisle, J. F., Beeman, M., Davis, L. H., & Spharim, G. (1999). Relationship of metalinguistic capabilities and reading achievement for children who are becoming bilingual. *Applied Psycholinguistics*, 20, 459-478.
  23. Carringer, D. C.(1974). Creative thinking abilities of Mexican youth: the relationship to bilingual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 493-504.
  24. Cromdal, J.(1999). Childhood bilingualism and metalingusitic skills: Analysis and control in young childre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9, 222-251.
  25. Cummins, J.(1978). Bilingualism and the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warenes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9(2), 131-149.
  26. Darcy, N. T.(1963). Bilingualism and the measure of intelligence: view of a decade of research.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82, 272-282.
  27. DeMaire-Dreblow, D. & Miller, P. H.(1988).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trategies for selective attention: evidence for a transitional period. *Child Development*, 59, 1504-1513.
  28. Diaz, R. M.(1985). Addressing three gaps in current research. *Bilingual Cognitive Development*, 56, 1376-1388.
  29. Duncan, R. M. & DeAvila, E. A.(1977). Bilingualism and cognition: Some recent findings. *NABE Journal*, 4, 15-50.
  30. Galambos, S. J., & Goldin-Meadow, S. (1990). The effects of learning two languages on level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gnition*, 34, 1-56.
  31. Ianco-Worrall, A. D.(197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3, 1390-1400.
  32. Liedtke, W. W., & Lelson, L.(1968). Concept formation and bilingualism.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4, 225-232.
  33. Macnamara, J.(1967). The bilingual's linguistic performance-A Psychological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23, 58-77.
  34. Miller, P. H.(1994). Individual differences in children's strategic behaviors: utilization deficienci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6(3), 285-307.
  35. Miller, P. H. & Aloise, P. A.(1995). Preschoolers' strategic behavior and performance on a same-different task.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2), 284-303.
  36. Miller, P. H. & Harris, Y. R.(1988). Preschoolers' strategies of attention on a same-different task.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628-633.
  37. Miller, P. H., Haynes, V. F., DeMarie-Dreblow, D. & Woody-Ramsey, F.(1986). Children's strategies for gathering information in three tasks. *Child Development*, 57, 1429-1439.

38. Miller, P. H. & Weiss, M. G.(1981). Children's attentional allocation, understanding of attention, and performance on the incidental learning task. *Child Development*, 52, 1183-1190.
39. Miller, P. H., Seier, W. L., Probert, J. S., Aloise, P. A.(1991). Age differences in the capacity demands of a strategy among spontaneously strategic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52(2), 149-165.
40. Miller, P. H., Seier, W. L., Barron, K. B. & Probert, J. S.(1994). What causes a memory strategy utilization deficiency? *Cognitive Development*, 9(1), 77-101.
41. Miller, P. H., Woody-Ramsey, J. W. & Aloise, P. A.(1991). The role of strategy effortfulness in strategy effect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7(5), 738-745.
42. Pearl, E. & Lambert, W. (1962). The relation of bilingualism to intelligenc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Whole No. 546), 1-23.
43. Takakuwa, M.(2000). What wrong with the concept of cognitive development in studies of bilingualism?. *Bilingual Review*, 25(3), 225-237.
44. Torrance, E. P., Wu, J. J., Gowan, & Allioti, N. C.(1970). Creative functioning of monolingual and bilingual children in Singapo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 72-75.
45. Woody-Ramsey, J. & Miller, P. H.(1988). The facilitation of selective attention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9, 1497-1503.